



SICAF 2005 40개국 400여편 애니 상영 세계 축제로 도약

제9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이 코엑스 태평양홀, 메가박스, 컨퍼런스룸, 시청 앞 서울광장, 서울애니시네마를 중심으로 열렸다. 국내 최고의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자리를 확고히 한 SICAF는 이번 행사에 산업과 더욱 밀착된 형태로 운영,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즐길 거리, 볼거리가 풍부했던 SICAF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지난달 11일 시작한 제9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이 16일 오후 폐막식을 끝으로 6일 동안의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 행사는 40만명(전시관람 15만명, 영화제 1만5,000명, 스페셜 이벤트 6만명, 사이버 전시 및 온라인 상영 20만명 등)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국제 행사의 면모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만화애니메이션 전문 전시컨벤션(코엑스 태평양홀)과 만화애니메이션 산업마켓(코엑스 컨퍼런스센터), 애니메이션 영화제(메가박스 코엑스점), 스페셜 이벤트(시청 앞 서울광장)로 치러진 SICAF 2005에는 24개국 80명의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해외 인사가 참가했다.

기획전시 신선함 돋보여

SICAF 2005 전시는 마니아는 물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변신을 시도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진행된 '만화애니메이션 전시'는 올해 총 7개의 존(Zone)으로 나뉘 80여 기업·단체와 22개 관련대학이 참가해 국내 만화·애니메이션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해방 60년 만화 60년 ▲이두호 특별전 ▲만화 속 청계천과 서울 등 다양한 주제로 만화·애니메이션을 다룬 기획전시가 인기를 끌었고, ▲잠재 만화 실험실 우바뽀 ▲유럽 만화 작가 4인 초대전 ▲유럽만화속 다색느낌 등의 전시는 신선함을 더해줬다.

특히 '메인테마 존'의 '만화로 돌아온 독립영웅'에서는 광복 60주년



을 맞아 일본 압제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부르짖다 숨겨간 독립투사들을 만화적 영웅캐릭터로 부활시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아이들은 이 전시를 통해 윤봉길·안중근·유관순·김좌진·김구·안창호 등의 독립투사들에게 필살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 보았던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캐릭터화된 이미지로 한 발짝 다가선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였다.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유럽만화와 세계 애니메이션의 전반적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글로벌 존'에서는 해외전의 비중을 높여 관객들의 관람 폭을 확장했다.

전통회화 기법으로 그려진 유럽만화 원화들을 만날 수 있는 '유럽만화 속 다색느낌'은 회화기법의 유럽만화작가 4인의 초대전으로 기획돼 '만화란 단순히 스토리의 전달수단으로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조화, 스토리와 기법의 조화를 통한 독자적인 세계의 구축이 중요한 매체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전시가 됐다. 참가작가 4명 중 3명이 한국을 방문, 독특한 그들의 작품세계를 선보이기도 했다.

11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만화애니메이션 산업마켓에는 40여명의 해외 관련 인사와 500 여명의 국내외 만화 애니메이션 관계자 및 일반인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SICAF 조직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미팅 룸을 설치해, 국내외 업체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했다.

해외 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경험

40여개국 400여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된 SICAF 2005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해외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으며, 행사 기간 중 메가박스 영화관 관객 점유율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족관객을 배려한 대중적 작품과 공식 경쟁작들은 메가박스에서, 마니아를 위한 독특한 소재와 실험적 성격의 작품들은 서울애니시네마에서 관람토록 한 이번 영화제는 개막작으로 룩셈부르크 피에리 쉬엘 감독의 <르나르 이야기>를 선정했다.

<르나르 이야기>를 개막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영화제는 장·단편을 포함한 88편 경쟁작과 6개 섹션에 걸친 초청작들이 애니광들의 만남을 기다렸다.

<도쿄 갓 파더>를 비롯해 쟁쟁한 화제작으로 무장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라인업은 다소 소박한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 안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장편 부문 수상작인 <디스트릭트>를 비롯해 일본 독립애니메이션의 신임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등이 아쉬움을 달래줬다. 특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와 곤조스튜디오 작품을 모은 <곤조 TV 스페셜> 등은 전회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빌 플립턴, 자크 드루앵 같은 거장들의 신작이 다수 포진돼 있는 일반 단편 경쟁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획기적인 영상이 충격을 던져준 크리스 랜드레스의 올해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작 <라이언>을 비롯해 일본 곤조 스튜디오의 TV 시리즈까지 최근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조망하는 '시카프 시선' 섹션과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기술적 변모를 엿볼 수 있는 '애니 스펙트럼' 섹션 역시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체코 애니메이션의 거장 안스방크마이에르의 전설적인 작품들과 <발렌스> 등 이름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걸작들을 모은 '명작 열전', 초기 장편에서 최근 단편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총망라한 '한국애니만세전' 역시 많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ICAF 2005 온라인 영화제의 경우 120여편에 달하는 영화제 상영작이 공개되면서 8만명의 네티즌이 관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서울시청 앞 시민과 다양한 축제 장 마련

올해 역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스페셜 이벤트가 가족 관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8월 12일과 13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다양한 상설 행사들이 운영됐다. 만화가 사인회·만화방 운영·사건 공모를 거친 우수 일러스트 전시회와 뽀로로·스폰지 밥·검정고무신 등 유명 캐릭터와 함께 하는 캐릭터 퍼레이드·페이스 페인팅·캐릭터 꾸미기 코너도 진행됐다. 특히 8월 12일에는 최근 개국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챔프데이'로, 13일은 '투니버스테이'로 선정,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 행사에 총 6만여명의 관람객이 ▲만화 그리기 대회 ▲만화 주제가 부르기 대회 ▲애니메이션 주제가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겨 한여름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SICAF 2005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는 헝가리 작가 아론 가우더(Aron Gauder)의 '디스트릭트' (The District)가 장편 부문 그랑프리를 받았고, 러시아 작가 이고르 코발로프(Igor Kovalyov)의 '밀크'(Milk)가 단편 일반 부문 그랑프리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작품 가운데서는 김기남 등 6인이 공동 제작한 '초혼'이 단편 학생 부문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